
2021년 제1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5. 7. ~ 5. 1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5. 7.	시청률	0.000

【총 평】

시니어를 겨냥한 궁중문화축전, 무형문화재 체험, 전통 농기구 만들기, 폐교에 추억여행 등 아이템이 돋보였고 산악문화 체험, 어린이와 함께 추억여행 경험 등 어린이와 공유하는 체험 스토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동구미 만들기, 대장간 호미 만들기 등 사라지는 전통의 명맥을 잇는 스토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거장들의 귀환 특별전’은 법정스님과 탄허스님의 육필원고, 최인호 소설가의 육필원고, 운보와 홍명희 편지 등 귀한 자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폐교에 마련된 추억여행 공간에 놓여진 옛 풍경이 시니어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디지털 치매 주의해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장시간 사용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휴대폰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나타나는 ‘디지털 치매’를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구성 및 내용】

■ 고궁의 정취와 문화 즐기는 '궁중문화축전'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경복궁에서는 궁중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다. 5대 굴궐과 종묘에서 진행되는 궁중문화축전은 올해로 7회째로 고종이 즐기던 커피를 이용한 이벤트, 향낭 체험 등도 더불어 열려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있다.

■ 소규모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호응

짚, 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초고장 체험이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지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체험은 대전문화재단이 마련한 다양한 체험으로 대전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참가자들은 체험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다.

■ 영주 대장간 명품 호미 'K-농기구'로 세계적 인기

영주대장간 호미는 50여년 장인의 손을 통해 탄생되는데 외국 쇼핑몰을 통해 8개 국가에 판매되고 있다. 호미뿐만 아니라 낫, 삽, 망치 등 30여 가지 농기구가 제작되고 있는데 특히 호미는 선물용이나 체험용으로 많이 판매된다.

■ 이웃과 정 나누는 뉴질랜드 교민들의 쉼터

한국식 책방 ‘숨, 쉼’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문을 연 책방 ‘숨, 쉼’은 한국책을 판매하는 곳으로 한국에서 수입해왔지만 가격 차이가 없이 판매하는 비영리업체다. 숨, 쉼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센터 역할도 한다.

■ '거장들의 원고·편지' 김유정 문학촌에 담기다

김유정 문학촌 낭만누리에서 ‘거장들의 귀환’이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법정스님의 원고부터 김춘수 시인의 원고, 소설가 이청준의 원고 등, 고 박민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기증한 192종 543점의 각종 자료가 전시되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5. 7.	시청률	0.000

【총 평】

‘경제&이슈’는 ‘3080+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루었고, ‘알뜰신잡은’ ‘봄철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물량과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전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철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법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종류, 유행 시기, 주요 증상, 감염원과 감염경로, 식중독 예방법 등 올바른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해 유익함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국내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닌 글로벌 상황을 비교하여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시청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 안목을 제시해 주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결정하고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WHO는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주택 공급방안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집을 지을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과 비주택 리모델링 등이 전월세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를 적용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거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와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제도적으로 막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LH사태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에 대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왔으나,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인 사용 및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부정한 이익 몰수 추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8.	시청률	0.069

【총 평】

‘백 번의 손길이 만들어 낸 한지의 울림-충북 괴산’편은 한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닥나무 수확시기와 닥나무 특징 등을 정교하게 표현한 수작이었다. 한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오랜 인고의 시간을 잘 표현하였고,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신비한 한지 탄생 과정, 충북 괴산이 한지 생산지로 적합한 이유, 물과 한지 관계, 한지 계승이 이뤄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잘 드러났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우러짐이 잘 표현되었고, 한지 장인의 계승 의지 등이 프로그램에 잘 담겨 있어서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 주었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닥나무 장작 타는 화로, 발에 뜨는 소리, 맑은 바람에 훑날리며 똑똑 떨어지는 옥춘지 말리는 소리가 프로그램을 돋보이게 했다.

【구성 및 내용】

청풍명월 괴산군 연풍면의 한지제조 공장을 소개하였다. 한지는 물이 좋아야 하고 물을 많이 써야 하는 특성으로 물 맑고 물이 끓이지 않는 괴산군 연풍면의 세 개의 합수머리가 만나는 곳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한지 제작의 최적화 요건을 소개했다.

한지의 고장,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고향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천년을 견딘다는 한지, 백번의 공정을 거쳐 한지가 되는 지난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닥나무 채취 장면을 시작으로 닥나무의 수확 시기와 좋은 닥나무의 특징을 소개했다. 장인은 닥나무를 채취 후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종이를 만드는 것이 자연에게서 재료를 얻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다시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처럼 느껴져 인상적이었다.

삼기와 박피 과정을 통해 닥나무 하나당 1/10정도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잘 부각시켰다. 또, 일일이 껍질을 다 손으로 벗겨내야 하는 작업이라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었다.

한지는 닥나무 잎이 떨어지고 새싹이 나기 전에 닥나무를 자르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베어 낸 닥나무는 껍질을 벗기고, 물에 불려 겹 껍질을 벗겨내고 잿물에 푹 삶아 3~4일 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을 풀어내 물질을 거쳐 종이를 떼내서 한 장 한 장 말리기까지,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과 땀을 거치지 않은 과정이 없다. 청풍명월의 고장 괴산은 항상 수온 12도를 유지하는 용천수가 펄펄 솟아나는 곳으로 이 물이 좋은 품질의 한지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다른 곳에 비해 특히나 질 좋고 두꺼운 괴산 닥나무는 한지의 좋은 원료가 된다.

비단은 오백년의 생명력이지만 한지는 천년의 질긴 생명력으로 오래 간다는 말을 비유한 ‘견오백지천년’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한지 장인은 3대째 한지를 만드는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배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우리의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남겼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8.	시청률	0.093

【총 평】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편은 섬진강 물줄기 옥정호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귀농한 3개월차 초보농부의 귀농이야기를 전했다. 신혼부부의 풋풋하고 신선한 초보 농부일기가 그려져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취업난 등에 시달리는 젊은층에게 귀농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획이 눈길을 끌었다.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내집 마련 어려움 등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결혼까지 기피하는 상황에서 귀농한 신혼부부가 농막에서 땅을 일구며 귀농 정착을 시도한 스토리가 젊은 층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옥정호가 내려다보이는 텃밭에서의 신혼부부 농사, 가족끼리의 산책과 식사 모습은 소확행을 통한 단란한 전원생활을 보여주었다. 친정을 찾아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어버이날’ 당일 방송돼 시의성을 잘 살렸다.

【구성 및 내용】

젊은 나이에 도시를 뒤로 하고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부부의 선택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또한 건강한 생각과 소박한 꿈이 인상적이었다.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가는 젊은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다.

도시적인 꿈과 욕망을 키워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번쯤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고 특별한 욕심 없이 부지런하게 살다보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부부의 이야기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도시 문화를 당연하게 누리다가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부부의 오전은 땅두릅을 따고 오후는 포장과 택배 발송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 친척의 밭을 빌려 재배한 두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나중에는 본인들 밭을 사서 직접 노지재배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 이렇게 수확한 두릅은 현재는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 귀농한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우며 초보 농부로서의 꿈을 키우는 모습도, 농사를 가르치며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직접 캔 쑥으로 빵을 만들어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야기 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황을 끼워 넣지 않고 일상을 그대로 쫓아간 것과 특히 자연스럽게 이뤄진 인터뷰가 효과적이었다. 두 부부의 말과 표정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읽어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평소보다 내레이션을 절제하고 부부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도 구성상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였고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되었던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8.	시청률	0.082

【총 평】

‘친북! 친절한 한반도 시사 토크’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집중 파악하는 시간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미국이 밝힌 대북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북한과 미국 양국의 입장 차이를 전망해 보았다.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ISSUE텔링’은 지난 달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북한이 한류 단속에 나선 속사정은 시청자들에게 북한을 바로 보기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한류 문화 확산은 북한의 체제 붕괴의 전초전이자 김정은에게 위기임을 현실감 있게 전했다.

【구성 및 내용】

‘미국 새 대북 정책 기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100일 만에 발표한 대북 정책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보여준 해법의 의미, 향후 북한 행보, 우리정부 역할 등을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냈다. 지난 5월 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북미,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미·북·중의 대응 전략 예측과 한반도 평화의 봄에 대한 상상력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행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을 압박하는 행간의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을 설득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접근 기술임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었다.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합의를 거쳐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었고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는 세포비서대회가 무엇인지, 최소 단의 집단의 책임자 등 구석구석까지 사상교육을 하려는 북한의 의도 등을 설명해 주었다. 세포비서는 5~30명 규모의 공장, 기업소 등 최소단위의 조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사상교육을 하려는 의도이며, 북한에서 BTS(방탄소년단)를 부르는 은어는 “방탄 배낭 매 뵈니”였다.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한 방송 시청을 단속하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몰래 보는 남한 방송의 실태와 북한내에서 한류 문화 전파 속도 및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한류 문화의 드라마 및 영화가 한달이면 북한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안겼다. 그렇게 빨리 한류문화가 북한과 공유가 되는 경로가 신기했고, 북한의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KTV 특집 코로나19, 그리고 한국경제		
방송일자	2020. 5. 9.	시청률	0.008

【총 평】

‘문재인 정부 4주 년 특집, 코로나19 그리고 한국경제’편은 1년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한국경제가 반등추세를 보이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을 밀착 취재해 그 비결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 기획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수출기업의 자구 노력, 버팀목이 된 4차 재난지원금, 상인과 소비자들의 착한 선결제 등 우리 함께 노력한 상생의 결과임을 강조해 국난 극복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조시켰다.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선결요건인 백신의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 등 극복과제를 제시한 점이 유의미했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 일궈낸 경제적 성과에 대해 살펴본 내용인데 되도록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한 점이 눈에 띄고 특히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의 코멘트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한국 인프라 시스템과 인적 자원의 우수성, 수출업체의 자구 노력, 재정 지원의 버팀목 역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동성, 민간과 자치단체의 상생 정신 등 위기를 비켜간 한국경제의 선방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속속 상향하고 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중국 등 모두 8개국에 꼽힌다. 다만, 정상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를 극복한 한국경제의 비결과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위기를 극복한 우수 수출기업을 탐방 취재한 부분이 설득력을 높였다. 매출의 약 9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산 ‘E’ 선박처리장치 수출 기업의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원격지원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경북 청도의 ‘S’ 푸드의 경우에도 한류의 인기로 인해 김치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물류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다양한 프로모션, 현지화, 영상활용 등을 통해 오히려 수출액이 늘어났다.

또, 자영업자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상생정신으로 코로나 침체를 극복한 전주시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우수 모델 사례로 꼽혔다. ‘착한 선결제 쿠폰’은 지역사회 스스로 경제를 지탱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특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한 한국경제의 현상을 상세히 진단하고 최근 민생경제 회복에 4차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낸 부분을 강조해 정부정책 홍보 역할을 잘 수행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5. 9.	시청률	0.002

【총 평】

다문화 가정 혜택과 가정경제를 돕는 착한 정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정책을 비롯해 근로장려금 혜택 종류와 방법, 생활안정자금 확대 혜택 정책과 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교육, 부모상담을 통한 자녀교육법 등의 무료서비스는 가사와 육아로 인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매우 부족한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은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들이 한국 거주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언어 서비스 및 생활 적응 서비스를 돕는 모든 서비스의 지원 제도를 알려주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로 부터 전달받는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자녀교육 상담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적응을 돕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주여성들의 고충을 강조하면서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방문교육 서비스를 소개했다.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는 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독서코칭, 숙제지도, 생활지도를 해주고, 부모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방문 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비 등을 꼼꼼하게 소개하고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등도 빠짐없이 언급해주었다. 또, 엄마의 언어 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을 연관 지어 언급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서비스로 부각되었다. 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언어자원을 육성하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정책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역발상의 정책으로 가족코칭과 활용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그 대상과 모집기관,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소개했다. 충북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는 베트남 등 7개 나라 언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근로장려금의 정의부터 신청자격, 총소득 계산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청자를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책은 특히, 2021년부터 신설되는 자녀 양육비 융자지원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금리를 상세히 소개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 밖에 생활안정자금 8종 세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까지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5. 9.	시청률	0.003

【총 평】

‘감동과 신뢰의 정부-지능형 AI 정부’편은 국민생활과 밀접해진 지능형 인공지능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 정부의 목표와 주요 사업 그리고 활용과제, 기대 효과 및 이점, 윤리적 문제 극복 방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폭 넓게 다룬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활용 사례, 대전시의 누리뷰 활용 사례, 고성군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지능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 구성이 흡인력과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곧 나에게 이익이 되는 뉴딜’임을 인식시켜 주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을 이끄는 기획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지능형(AI) 정부’라는 주제로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만나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었다. 지능형 정부의 개념, 모바일 신분증,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 사이버 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능형 정부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이르기까지 쉽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고 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틀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었다.

지능형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바일 신분증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공무원증’과 신기한 거울이라고 불리는 대전시청의 ‘누리뷰’ 그리고 도시철도 인공지능CCTV 등의 사례들도 지능형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경남 고성군에서 노년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는 국민 생활 깊숙이 파고든 통합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너무 고마워 아리아를 업고 다니고 싶다”며 만족도를 표현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판단에서 오는 한계 등 을 지적하고 AI윤리 가이드를 소개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함께 윤리적 문제 등 역기능까지 자세하게 언급했다. 정부정책에 바라는 점과 정책적 제언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등 유기적 협력, 관련법과 제도의 재정비, 실생활 체감 실용성 제고, 민관 협력 필요, 국민 니즈의 선제적 해결 등 당면 현안을 제시했다.